

장애인식개선 카드 뉴스

1109 민동건

청각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청각장애**2급 C**씨는 가사 사건으로
소송진행 중 수어 통역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가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C씨에게 수어 통역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사, 가사 소송 중
수어통역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민사,
가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농인 체험

수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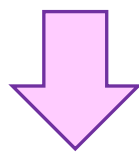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인식이 가능한 무인 결제기(키오스크)를 만들 것.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마스크를 만든다.

입모양으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수를
늘려야 한다. 횡단보도 수에 비해
음향신호기의 수가 매우 적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행사

▲ '미지의 천사'와 그 동행인들을 풍선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현대자동차 봉사도우미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THANK U